

사 설

지난 4월 27일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도정을 이끌고 있는 최문순 도지사가 그동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도정업무 파악 등을 마무리하고 강원도 현안해결과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최지사는 지난 10일 정부 주요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도정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번 방문에서 고성지역의 현안으로는 국회를 방문해 의정연수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건의하는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비해 인근 양양군의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산림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잇달아 제기해 사업 성사 가능성을 크게해줬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서는 산림청을 방문해 정선 '중봉 활강경기장' 조성을 위한 산지 전용 행정절차 사전해소를 요청하고, 국방

부를 방문해서는 군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국회를 방문해서는 동계올림픽 관련 특별법 제정시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등록문화재인 철원감리교회 복원을 위해 35억원의 소요예산 중 50%인 18억원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

을 건의하고, 오대산본 '조선왕실의궤'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월정사 유물전시관 신축공사비 110억원 중 국비 55억원을 조기지원해 달라고 건의하는 등 예산이 수반되는 소규모 현안 사업까지도 직접 챙겼다.

국방부 방문에서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피해를 입고 있는 육군 제13항공단 이전과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행사 지

원을 요청하고, 횡성 청정녹색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593탄약대대와 842방공중대 등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 굼직한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원주~강릉 복선철도 건설,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연장,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등을 건의했다.

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를 꼽을 수 있겠다. 짙금예산으로 인해 이미 지난해 완료됐어야 할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올해내에 간성~거진까지만이라도 반드시 완공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진부령 4차선 확포장 공사도 중요한 현안이다. 다른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필요성이 다소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최대 현안으로 꼽고 있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 재개와 고성뿐만 아니라 동해안 어업인 대다수와 관련 있는 면세유 문제 등도 거론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지사는 앞으로 남은 하반기는 외부 일정을 과감히 줄이고, 대정부·대기업·대정치권 활동을 보다 강화해 도정 현안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무쪼록 앞으로 중앙 부처 등을 방문할 때 어려움에 처해있는 고성군을 위해 보다 많은 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

최문순 지사 중앙부처 방문 유감

이번 방문에서 최지사가 건의한 사업들은 모두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데 이의가 없지만, 이왕이면 우리 고성지역의 중요한 현안들도 다수 포함되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이다.

고성지역의 주요 현안 몇가지를 거론하자면, 우선 가장 시급하면서 성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성~현내간 국도 7

금강칼럼

건강한 삶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뿐인 생명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무런 근심 걱정과 고통이 없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향유하는 삶을 원한다. 인생은 만수무강을 희구하고, 수복강년을 원한다. 오래 살도록 하되 건강하며 마음이 편안함은 민족정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약가의 경상수 유전남매 자손현'이라 약으로도 재상의 생명을 고치지 못하며 돈이 많아도 자손의 현명함을 얻기는 어렵기에 인생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한다.

우선 정신수련이 중요한 과제다. 이 수련은 명상 몰입 기억술 뇌 호흡 단 기공이나 음악경연대회 장기자랑 흥미 취미로 기쁨과 즐거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잊고 정도의 길로 간다는 의미이다.

명심보감에선 손진의 양생명엔 화심이기에 불식은 나의 본심이라고 한다. 하나 노심이니, 성냄이 지나치면 기운이 상쳐받게 된다. 둘 사다이니, 생각이 많아지면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셋 피노심이니, 신경이 피곤하면 마음도 병든다. 넷 기운이 약해지면 병이온다. 다섯 비희극이니, 너무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섯 음식균이니, 음식을 고르게 먹어야 한다. 일곱 야취이니, 밤에 술 취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여덟 계신진이니, 아침에 성냄을 조심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수련을 하라는 것이다.

아홉 보건운동이다. 그 하나 실내에선

운동수기요, 둘 실외에선 걷는 수기수수를 받아 DNA의 환경을 개선하고, RNA의 의술로 100세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수명연장에 도움이 되었음에 기일층 행복한 삶을 향유하게 되었다. 이 기쁨을 지혜롭게 나눠 발휘하자. 그러나 '극단에서 극은 화를 부르고 과다와 과소는 덕이 아니요 부덕이다'는 수훈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어리석은 짓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어떤 이익을 위하여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의 과제이다. 하나 정신건강으로 건전한 생각 또는 사리분별에선 폼하 편파 편견, 공사 불투명, 전무한 편향 등을 지양하고 긍정과 온화한 마음가짐이란 사실이 백일하에 밝혀졌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잊고 생활하는 일이 태반사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출몰한 도

김 종 식
객원논설위원



'과다'와 '과소'는 덕이 아니다

독처럼 찾아든 치매, 정신분열, 우울증, 불면증 등은 누구에게도 찾아드는데 이를 물리쳐버리는 마음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둘 육체적 건강은 튼튼하고 씩씩하며 강건한 정신과 육체에 윤기와 힘이 머무른다.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 깃드는 것처럼 오늘에 사는 우리가 이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셋 사회적 건강은 인간환경을 화친하여 평화롭게 평안 평온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사람이 사업적으로나 또는 인간적으로나 실패하는 원인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돌이켜보면 나 자신은 이웃에게 대하여 친절한 일을 한 일이 없으면서 이웃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음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남이 당신을 좋아하게 하려거든 당신 자신이 귀와 눈을 닫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어야 한다.

어린이 만화 '뽀로로'에서도 사람 그리고 동식물 등 자연과 더불어 공존공생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영상교육은 손자에게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고 있다.

물 폭탄이 떨어져 우면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분들, 재산손해로 하루살기가 어려워 학교 회관 공공시설에서 지내는 수재민들의 복구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겠다는 것. 종이장도 맞잡아 들어야 바르다는 말처럼 수재의연금과 자원봉사 활동은 물론 복구가 소기의 목적에 달하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자는 것이다.

겸하여 해변에 삶의 근거지를 가진 주민 기타 지역민에게도 수시로 안전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치산치수라지만 자연환경 보전 그대로가 더 중요하다는 지혜를 실감하였다.

제25호에 이어 무(나복 蘿蔔)의 비밀을 알아보자. 무는 담증엔 날 것으로 먹으면 갈증이 멎고 음식이 잘 소화되어 기분이 상쾌하다. 지혈 지해 속독해열엔 즙을 내어서 먹으면 효과가 된다. 담증과 식전엔 삶아서 먹으면 효과가 있다. 해수 폐결핵 토혈엔 염소고기와 붕어 은어 천식엔 곱을 해 먹으면 치유된다. 원기보양엔 돈육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효능이 있고, 어패류를 함께 먹으면 비린내를 없애준다.

◇편집국에서

0...지난 7월 한달간 동해안 북부지역 해변을 찾은 피서객수가 전년에 비해 18%나 감소했다고 한다. 속초해경 집계에 따르면 7월 한달간 고성지역을 찾은 피서객은 화진포 4만명, 삼포 3만명, 송지호 2만명 수준이라고 하니 울여름 '피서특수'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그러나 이는 개장 초기 낫은 날씨 탓에 피서객이 많이 찾지 않았기 때문이며, 앞으로 날씨가 좋아지면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 21일까지 얼마남지 않은 해변 개장기간 동안 보다 많은 피서객들이 우리지역을 찾기를 기대해본다.

강원 고성신문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